전남 22개 시·군 택시 2000대 감차해야

7062대 운행 중 … 허가 남발에 공급과잉

고흥·진도·신안 등 절반 이상 줄여야 수지 맞춰

전남 22개 시·군이 택시허가를 남발하면서 과잉공급된 택시가 2000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군지역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의 절반 이상을 감차해야 수요에 맞출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6일 전남도의 제3차(2015~2019) 택시 총량 산정 결과 고시에 따르면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택시는 모두 7062대로, 이 가운데 1979대(28.0%)를 줄인 5083대가 적정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총량제 감차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1468대(20.8%)만 감차하는 5594대를 목표대수로 승인했다.

고흥군의 경우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 220대 가운데 178대(80.9%)를, 진도군과 신안군도 96대와 97대의 택시 가운데 각각 71대(74.0%)와 68대(70.1%)를 줄여야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추정됐다. 광양시 411대 중 169대(41.1%), 목포시 1551대 중 460대(29.7%), 순천시 1192대 중 353대(29.6%) 등 시 단위 지자체들도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각 시·군이 추진한 택시 감차 규모 산정 용역은 하루 8시간 택시 운행을 전제로 공차율과 실차율을 근거로 적정대수를 산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택시 감차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택시 번호판 반납에 따른 보상비가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군비 910만원)에 불과해 비현실적인데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감차보상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운행중인 택시가 감차비용을 적립하도록 하기 위해 제3차 감차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갑자기 감차보상비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시·군이 감차 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의 여건에서는 과잉공급된 택시를 강제로 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 35개 '전국 최다'

농산물 20개, 가공식품 4개

전남도가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이 3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산 농식품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은 2002년 전국 1호를 기록한 보성녹차를 비롯해 담양딸기, 고흥마늘, 해남겨울배추, 영암무화과, 진도 울금 등 농산물이 20개로 가장 많다.

또 돌산갓김치, 진도홍주 등 가공식품 4개, 고흥한우, 함평한우 등 축산물 3개, 광양고로쇠수액, 구례산수유, 장흥표고버섯 등 임산물 8개 등이다. 전국 등록 품목(148개)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곡성 토란, 신안 무화과에 대해 품목의 우수성, 역사성, 지리적 특성 등 타 지역산과 구체적인 차별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농식품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은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표시 대상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단체가 지리적표시의 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등 필요한 등록서류를 갖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임산물은 산림청)에 접수하면 된다.

박경곤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리적 표시 등록은 그 지역 특유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배타적 권리를 선점하고 상품 브랜드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지리적표시 등록을 확대해 농산물 품질 관리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혁신도시 인근 호혜원 축산업 폐업 합의 나주시와 호혜원 주민운영위원회가 6일 축산업을 폐업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한센인 자활촌인 호혜원에서 발생한 축산 악취는 인접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입주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주민들은 축산업을 중단하고 나주시는 폐업보상 등을 하기로 했다. 〈나주시 제공〉

국회도서관-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 업무 협약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6일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와 의정자료 공유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회도서관은 입법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해 온 국회전자도서관, 의회·법률정보DB 등 국회도서관의 풍부한 지식정보를 각 시군자치구의회에 제공,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각 기초시의회에서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회의록·의안·조례 등 지방의정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해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2014년 7월 17개 광역시도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지난 6월에는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공유 통합시스템을 개통했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에는 전체 기초시의회로 상호 협력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철 관장은 "이 시스템이 국회와 지방의회 간, 지방의회 상호 간 정보공유와 정보격차 해소에 기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재벌 해외계열사 지분, 국내외 계열사 출자 공시 의무

당정, '롯데사태' 계기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당정은 6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사태를 계기로 재벌총수 등이 해외계열사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지금은 해외에 있는 법인에 대해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로 뭘 할 수가 없는데, 동일인이 국내에 있으면 그 동일인에게 공시 의무를 부과해 제대로 된 자료를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의 경우 국내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드러난 일본의 롯데홀딩스, 광윤사, L투자회사 등과의 지분관계가 그동안 베일에 싸였지만, 동일인(재벌 총수)인 신격호 총괄회장 등에게 공시 의무를 부과하면 이들 지분관계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 의무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총수에 이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61개, 이들 그룹의 계열사는 1674개다.

당정은 다만 기존의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데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2013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기업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해소되는 추세인 데다, 이를 강제하면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당정은 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투명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2 수에즈운하 개통

각국 지도자 등 6000명 참석

이집트가 6일(이하 현지시간) 동북부 운하 도시 이스마일리아에서 역사적인 제2의 수에즈운하 개통식을 연다.

이집트 수에즈운하청이 주축이 돼 이날 오후 1시45분부터 진행하는 공식 행사에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 세계 정상급 지도자 40여명이 참석한다. 각국 외교사절단과 사업가, 취재단 등 6000명도 이번 행사를 현장에서 지켜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단장으로 새누리당 박대출·김진태 의원, 해수부 전기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특사단으로 참석한다. /연합뉴스

지중해서 또 난민선 전복 … 200여명 사망 우려

지중해에서 또다시 대규모 난민 참사가 발생했다.

6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해안경비대 등에 따르면 난민 수백 명을 태운 어선이 5일 오전 리비아 인근 지중해 상에서 전복돼 최대 200여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약 400명의 난민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난민선은 리비아에서 15해리 떨어진 곳에서 기상악화로 운항이 어렵게 되자 구조신호를 보냈고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카타니아에 있는 해안경비대가 이를 접수하고 곧바로 국경없는 의사회의 '디그너티 원'과 아일랜드의 순양함 '르 니암'을 투입해 구조작전에 나섰다.

그러나 구조를 기다리던 난민들이 먼저 도착한 순양함 르 니암을 발견하고 한꺼번에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했다고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설명했다.

이 배에는 난민 600명 이상이 승선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의원
레이저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펨토세컨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無출혈 / 無통증 / 無봉합 / 無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밝은광주안과의원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